

2022 사순절 시리즈 <천로역정 함께 읽기> 2강

“좁은 길과 세상에서 갈등하다”

- 마태복음 7:13-27 -

1. 홀로 걷는 외로운 길에 나타난 세속현자(Worldly Wisdom)



그 양반(Evangelist)이 댁에게 가리켜준 것만큼 위태롭고 험난한 길은 다시 없을 거요. 여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돌아보구려. 낙담에 빠져 허우적대다 개흙을 온통 뒤집어쓰지 않았소? 잘 들어요. 이 길을 따라가는 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요. 늑장은 시작에 불과하지. 세상을 좀 산 늑은이가 하는 말이니 부디 명심하시구려. 전도자가 짚어준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피로, 고통, 굶주림, 심각한 위기, 헐벗음, 칼, 사자, 용, 흑암 따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거요. 그야말로 죽음과 맞닥뜨리는 거지. 길을 막고 물어보시오. 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줄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테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작정 위험한 길에 뛰어든 필요가 어디 있겠소?

- 세속현자의 충고

- 1) 성경을 집어 던지라
- 2) 내 힘으로 이루라

요 옆에 도덕골(A village called Morality)에 가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위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요. 마을에는 법엄수(Legality)라는 어른이 살고 계신데 신중하고 명철하시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시오. 그대가 어깨에 짚어진 것과 같은 짐 들을 덜어주는 기술을 가지셨지. 듣기로는 그 방면에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나시다는구려 ... 당장 도움을 받으시구려. 댁이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혹시 출타 중이면 자체분의 힘을 빌리구려. 이름이 ‘점잖음’(civility)라고 하던가?

2. 복음전도자와 재회

(히 12:25)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나

(히 10: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세속현자의 전략

- 1) 바른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다.
- 2)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를 다 쓴다.
- 3) 죽음이 기다리는 길고 들어서게 유혹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세속현자가 만나보라고 했던 **법염수씨**는 지금도 자식들을 데리고 종살이 하고 있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크리스천씨가 당장이라도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아서 겁이 난다고 했던 높은 산의 이름은 시내 산입니다 ... **법염수씨**는 등짐을 느슨하게 해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여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갈 3: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3. 양의 문에서 만난 선의(Good-Will)



문간에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쫓겨날 일이 없는 거죠...자 이제 잠시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크리스천씨가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죠.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게 보입니까? 저게 택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짐이 버겁겠지만 구원받는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만 참으세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등짐 따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4. 해석자(Interpreter)와의 만남

4-1 초상화



어두운 것을 알아내서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게 이분의 일이라네 ...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일세. 거기 가는 도중에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를 이끌어 주실 분이란 뜻이라네 ...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 나타나서 바른길로 인도해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을 게 아닌가!

4-2 먼지가 가득한 방

- 먼지는 원죄와 내면의 먼지는 원죄와 내면의 타락
- 비질은 죄책감에 빠뜨리는 율법
- 물은 뿌린 일꾼은 복음이다!

(롬 7: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4-3 두 아이의 방

- 정욕(passion)과 인내(patience)에 대한 해석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한다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지. 지켜봤으니 잘 알겠지만, 정욕은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친구들은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뤄지길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몫으로 남겨둘 줄을 모르는 걸세 ... 그대가 본 것처럼 정욕은 수중에 넣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버리고 텅마조가리만 붙들고 있게 된다네 ... 세상의 보화를 가진 이는 살아 있을 동안만 누리고 쓸 수 있지만 최후의 보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네...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소.

4-4 벽난로가 있는 방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세.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이는 사탄이지. 하지만 보다시피 마귀가 제아무리 훼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고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네 ...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쉴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시작된 일이 사그라지지 않게 지키시는 걸세.



4-5 아름다운 궁전 입구

다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눈치였다 ... 대궐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도 잔뜩 버티고 있었다. 누구든 궁전으로 들어가려들면 최대한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안겨주겠다고 단단히 작심한 듯했다 ...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입힌 끝에, 마침내 사내는 병사들의 방어선 사이로 길을 뚫고 궁전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순간, 안에 있던 이들과 성벽 위를 거닐던 이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4-6 절망의 감옥에 갇힌 자

믿음에 관하여 누구 못지않게 곧바르고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지요. 한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 지금은 어끘데요?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예요. 절망감이 철장처럼 날 에워싸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젠 다 틀렸어요.



크리스천은 한 어두운 방으로 인도를 받는다. 거기서 한 사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절망(Despair)이었다. 크리스천은 절망 씨가 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절망이 대답한다.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갔어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떠나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중심에 받아들이고 말았지요 ... 이제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돌이킬 수조차 없게 됐어요.

4-7 무서운 꿈을 꾸는 자에 대한 해석

수많은 이들이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난 뒤에 남고 말았습니다. 어디든 숨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날날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이 인정사정 두지 않고 날 고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에서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